

2014. 12. 03(수)

당직자 하종근

消防災難關聯 言論報道內容

구 분	계	보 도 내 용			
		긍정	부정	동정	일반
계	43	0	0	0	43
T V	6				6
신 문	37				37

京畿道消防災難本部

言論報道事項 目次

TV 보도

순번	제 목	방송매체	페이지
1	“경기도 4천억 빛내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숙제’	KBS 뉴스	1
2	남경필 후원회에 ‘불법 후원금’ 업체 수사 본격화	KBS, MBC, SBS 뉴스	2
3	같은 산을 사이에 둔 두 지자체…‘너는 보호, 나는 난개발’	MBC 뉴스	3
4	[경기] 공무원 후생복지예산 크게 올려	YTN 뉴스	4
5	침몰 ‘501 오룡호’ 실종자 52명…수색작업 난항	KBS, MBC, SBS 뉴스	5
6	[날씨] 내일 출근길 눈 조심…대설특보 확대	KBS, MBC, SBS 뉴스	6

신문 보도

순번	제 목	언론사	면수	페이지
1	소방관 위해...6천만원 내놓은 할머니	중부일보	022면	7
2	南지사 후원회에 ‘쫓개기 후원금’ 의혹 업체 압수수색	경기신문	018면	8
3	김원기도의원, 합동청사 이전예산 확보 촉구	현대일보	003면	9
4	광명소방서, 신속한 인명구조 돋보여	현대일보	008면	10
5	광명소방서 신속한 인명구조	내외일보	009면	11
6	광명소방서 119구조구급대, 신속한 인명구조 돋보여	아시아일보	004면	12
7	광명소방서 119구조구급대, 신속한 인명구조 돋보여	수도일보	010면	13
8	광명소방서 119구조구급대, 신속한 인명구조	경인매일	015면	14
9	성남소방서, 심장 멈춘 30대 남성 고귀한 생명 살려내	아시아일보	004면	15
10	성남소방서, 심장멈춘30대남성살려	경양일보	006면	16
11	고양일산소방서, 화재배상 책임보험 조기 가입하세요	현대일보	007면	17

순번	제 목	언론사	면수	페이지
12	화재배상 책임보험 독려	서울매일	014면	18
1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내외일보	009면	19
14	일산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가입 독려	아시아일보	004면	20
15	구리소방서, 2014년종합보고회	경양일보	006면	21
16	국민행복안전정책 실적 최종 점검	경도신문	010면	22
17	2014년추진업무종합보고회	경기도민일보	005면	23
18	양평소방서, 직원 심신건강 위한 'PTSD 치료실'	일간경기	016면	24
19	양평군 옥천면의용소방대, 사랑의 소화기 전달	현대일보	009면	25
20	포천소방서 '불조심 강조의 달' 작품 공모	일간경기	015면	26
21	군포소방서, 출근 직원 불시 음주측정	현대일보	015면	27
22	군포소방서, 출근 직원 불시 음주측정	아시아일보	004면	28
23	"음주운전, 불면 다 나온다"	경도신문	010면	29
24	여주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예방 홍보물 배부	수도일보	011면	30
25	화성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 독려	수도권일보	011면	31
26	이천소방서, 현장안전관리 평가대비 구슬땀 흘려	선경일보	004면	32
27	여주소방서, 화재에 취약한 공동 주택 등에 화재예방 홍보물 배부	선경일보	004면	33
28	시흥소방서, 하트세이버 칭찬직원 표창	경인일보	111면	34
29	하남소방서 여성의용대 김장나눔	경인일보	111면	35
30	하남소방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실시	경인매일	002면	36
31	양평군 옥천면의용소방 대, 사랑의 소화기 전달	선경일보	003면	37

순번	제 목	언론사	면수	페이지
32	어린이불조심우수작품전시	경기도민일보	004면	38
33	청렴, 우리 세대의 의무다	경기일보	022면	39
34	산행의 즐거움은 안전부터	경기신문	017면	40
35	축사등동식물관련시설안전한겨울나기	경양일보	019면	41
36	기초 소방시설로 주택화재 예방하자	경기신문	017면	42
37	‘소방도로 불법주차, 작은 불도 큰불 된다’	경기매일신문	013면	43



“경기도 4천억 빚내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속제’

<앵커 멘트>

경기도가 4천억 원의 빚을 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빚으로 짓고 도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 갚겠다는 건데, 재원 조달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청이 옮겨올 광고신도시의 부지입니다. 이 땅에 25층 짜리 새 청사를 짓습니다. 내년엔 착공해 오는 2018년까지 도청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게 경기도의 계획입니다.

문제는 당장 공사비가 없다는 겁니다. 총 건립비는 4천200억 원. 경기도는 일단 빚을 내 착공한 뒤 산하 기관 청사와 도유지 등 부동산을 팔아 갚아보되 부족분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이익 배당금을 받아 가져오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각도 생각처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산에 있는 44만㎡ 크기의 도유지. 쓰레기매립장이어서 민간 매각이 쉽지 않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경기도는 이 땅을 안산시에 890억 원에 팔겠다는 계획이지만, 안산시는 땅을 살 이유도, 능력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경기도 안산시 관계자 : "(매입계획이 있나요?) 전혀(없습니다). 그 중에 10% 내외만 축구장을 조성하겠다는거지 무상임대를 받아서..." 11개 매각 대상 가운데 도심에 있는 부동산 3~4(서너)건을 빼면 매각이 어려워 보입니다.

당장 돈은 없는데, 공약은 지켜야하는 난감한 상황.

<인터뷰> 김종석(경기도의원/부천) :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겠느냐. 안팔렸을 때 도민 혈세로 메꿔야할 위험성이 있고요"

<인터뷰> 장현국(경기도의원/수원) : "주민들하고 약속이고요. 믿고 입주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는 내년도 공사비 210억 원도 도의회 통과가 불투명해 당장 다른 사업비를 줄여 예산을 마련해야 할 처지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소방재난보도 (TV)

KBS, MBC, SBS 뉴스

2014. 12. 2(화)

남경필 후원회에 '불법 후원금' 업체 수사 본격화

검찰이 남경필 경기지사 후원회에 이른바 '쫄개기 후원금'을 낸 의심을 하는 벤처업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1일) 오전 11시쯤부터 5시간 가량 대전에 있는 한 벤처업체 본사와 서울 홍보관 등 2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장부와 회계 담당자 휴대전화, 컴퓨터 전산 파일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가 6·4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6월 2일 법인 자금 5천만 원을 가족 등 10명 명의로 5백만 원씩 쫄개 남 지사 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남 지사 취임 이후인 9월 29일 이 업체와 IT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업무 협약이 후원금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소방재난보도 (TV)

MBC 뉴스

2014. 12. 2(화)

같은 산을 사이에 둔 두 지자체... '너는 보호, 나는 난개발'

◀ 앵커 ▶

산 정상을 기준으로 한쪽은 산림이 우거져 있는데 다른 한쪽은 전원주택이나 빌라 같은 주택단지로 꽉 차 있습니다.

같은 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일까.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성남시와 광주시의 경계인 영장산.

산 정상을 경계로 한쪽은 산림이 울창한 반면, 다른 한쪽은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산봉우리가 통째로 잘려나갔습니다.

정상 주변에는 아직도 전원주택 공사가 한창입니다.

원래 나 있던 등산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끊어져 절벽으로 변했고.

◀ 이규호/등산객 ▶

"원래 등산로이었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해주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골짜기에는 가파르게 돌로 축대를 쌓아서 붕괴 위험마저 있습니다. 시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임시 축대입니다.

산 능선을 따라 3백여 미터를 더 갔더니, 또 다른 공사 현장이 나옵니다.

◀ 등산객 ▶

"완전 난개발이 됐고, 훼손이 됐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바로 두 지자체의 개발 허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축이 가능한 경사도의 경우, 성남시는 12도까지로 제한하는 데 비해, 광주시는 20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 서용미/성남시 분당구 건설과장 ▶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건축 허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 나종윤/광주시 도시계획과장 ▶

"나름대로 규제가 완화되어서 공장들도, 큰 대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가운데, 성남시는 광주시가 시 경계를 침범해 산림을 훼손했다며, 공사 중단과 원상 복구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소방재난보도 (TV)

YTN 뉴스

2014. 12. 2(화)

[경기] 공무원 후생복지예산 크게 올려

재정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밝혀온 경기도가 내년도 직원 후생복지예산을 올해 보다 61% 많은 53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무원 체육대회가 올해 보다 5배 많은 2억2천5백만원이 편성됐고 휴양시설이용비도 5억원으로 올해 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현장체험 예산도 올해 보다 2배 많은 5천만원이 편성됐고 해외연구비용과 해외시찰지원비,수련회 등의 사업비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재난보도 (TV)

KBS, MBC, SBS 뉴스

2014. 12. 2(화)

침몰 '501 오룡호' 실종자 52명...수색작업 난항

<앵커 멘트>

어제 베링해에서 침몰한 501오룡호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고가 일어난 러시아 서베링해 해역에서는 오늘도 해질녘까지 구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수색 선박이 추가 투입돼 모두 5척의 선박이 구조 활동을 벌였고, 러시아 구조선도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항공기도 도착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녹취> 노광일(외교부 대변인) : "시급히 주재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수색 구조활동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0시간이 넘는 수색에도 불구하고 추가 생존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지 해역의 수온이 0도 안팎으로 매우 낮은데다 파도도 거세고 기상도 좋지 않아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항공기가 투입되면서 구명 보트와 구명조끼, 튜브 등 부유물 일부를 확인하기는 했지만, 실종자 발견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수색 작업은 내일 날이 밝는대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조만간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구조된 선원 8명 가운데 숨진 1명은 한국인으로 1차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날씨] 내일 출근길 눈 조심...대설특보 확대

내일(3일) 출근길은 평소보다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지금 충청과 호남 곳곳에 내리고 있는 눈이 내일 새벽에는 그 밖의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앞으로 충청과 전북에 최고 15cm 이상, 그 밖의 서해안과 남부 내륙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오면서 대설특보도 빠르게 확대될 것입니다.

서울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 빙판길이 우려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파의 고비는 넘겼지만, 내일도 계속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5도, 철원 영하 8도까지 푹 떨어질 것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눈이 오는 곳이 많겠고 오후에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호남과 경북 내륙에도 많은 눈이 오다가 낮 동안에는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는 계속되는 가운데 서해안 쪽으로는 눈 소식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하영 기상캐스터)

